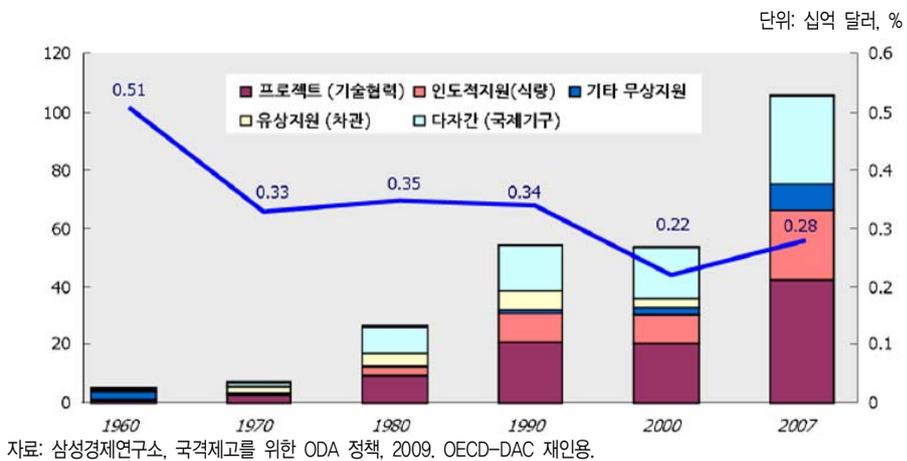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25일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의 전원합의로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DAC 가입을 통해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번 달에는 OECD-DAC 주요 가입국의 ODA 규모와 현황에 대해 표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는 OECD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였다.

그림 1 DAC 주요 가입국의 ODA형태 및 GNI 대비 비중 추이



DAC주요 회원국의 ODA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원조 형태별로는 1960년대 기타 무상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기술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한 ODA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GNI대비 ODA 비중은 1960년대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신생국과 개도국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0.51%에 달했다. 그러나 2007년 DAC 국가들의 ODA/GNI 비율은 0.28%로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DAC 주요 회원국의 ODA 규모는 전년 대비 11.7% 늘어난 1156억 달러이고, ODA/GNI 비율은 0.31%이다. 최근 다시 증가세에 있지만 권고 수준인 GNI대비 0.7%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원조 총액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미국 역시 GNI 대비 비율은 0.18%에 불과하며, 일본도 DAC 평균에 못 미치는

0.18% 수준이다. 현재 DAC 23개국 중 GNI 대비 ODA 비중이 0.7%을 넘는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에 불과하다.

표 1 2008년 DAC 주요 회원국의 ODA 규모 및 GNI 대비 수치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ODA 규모		ODA/GNI	
미국	26,008	(1)	0.18	(10)
영국	11,409	(3)	0.43	(6)
프랑스	10,957	(4)	0.39	(7)
독일	13,910	(2)	0.38	(8)
호주	3,116	(9)	0.34	(9)
일본	9,362	(5)	0.18	(10)
덴마크	2,803	(10)	0.82	(4)
룩셈부르크	415	(12)	0.97	(2)
네덜란드	6,993	(6)	0.8	(5)
노르웨이	3,963	(8)	0.88	(3)
스웨덴	4,732	(7)	0.98	(1)
한국	802	(11)	0.09	(12)

주: 괄호 안은 순위를 나타냄.

자료: OECD-DAC(www.oecd.org).

한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ODA를 국민순소득(GNI) 대비 0.25%까지 확대키로 하고, 원조방식도 DAC의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조 비구속성 제고, 원조 집행에 있어 원조효과성 제고, 무상·유상 원조간 연계 강화, ODA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OECD-DAC(www.oecd.org).

삼성경제연구소, 국제제고를 위한 ODA 정책, 2009.

작성자: 윤종열, 민자혜